



## 충남人터뷰 - 20대 충남 초선국회의원 인터뷰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아산

### [약력]

충남 아산 출생  
건국대 경영정보학과 졸업  
안희정 충남도지사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  
미국 뉴욕주립대 객원연구원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더불어민주당 아산을 지역위원장



### △ 당선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 당선되었다고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것임을 잘 압니다. 많은 아산시민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어깨가 많이 무거워 짐을 느낍니다.

4월 13일, 아산을 시민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투표하셨습니다.

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산과 함께어나갈 새로운 정치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과 함께' 정치를 새롭게 만들라는 명령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아산의 미래, 새로운 아산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향후 4년 동안 의정활동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 지난 19번의 국회와는 다르게 이번 20대 국회는 바뀌어야 합니다. 정치 자체를 혁신해야 합

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는 정치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소망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산시민의 투표에 새로운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유권자 분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제발 싸우지 좀 마라"입니다. 저는 앞으로 4년동안 민생을 최우선적으로 챙기면서 일 잘하는 국회의원, 성과를 내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희망하는 상임위는 어디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마음대로 정해지진 않겠지만 제가 가장 희망하는 상임위원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입니다. 가서 아산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들이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설계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인구유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산은



성장속도에 비해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교육도시로서의 아산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문화체육 관광위원회에서 일하고자 합니다.

### △ 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는 무엇이며,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 아산은 현대와 삼성을 모두 가진 도시입니다. 따라서 새롭게 성장하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아산을 기업이 일하기 좋고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는 도시로 만드는 것이 시급한 현안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수도권 규제 재추진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수도권은 포화상태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이렇게 해서는 국토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적절한 시설 및 인구의 지역분산으로 고른 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통과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엄마들이 머물러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산은 도시의 성장에 비해 교육 인프라 등 교육보육시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자라나는 아산의 미래들이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산의 교육보육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도시, 맘(Mom)이 편한 아산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아산시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민간어린이집의 국가 보조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아이를 낳은 부모님들이 아이 교육, 보육 문제로 걱정하는 일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공약 중 국가적 차원에서 중점 추진하고 싶은 공약은 무엇입니까?

☞ 국가적 차원에서 중점 추진하고 싶은 공약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철폐입니다. 저의 핵심공약 중의 하나인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아산 유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철폐와 맞닿아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아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수도권 과밀화로 인해 국토 균형발전이 저해되고,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세종시 건설과 각종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지방과 수도권의 공존을 위해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 △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 충청남도 11명의 국회의원 중 5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변화를 바라는 충남도민들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 정치로 인해 정치불신이 포화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는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 도민들의 선택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가 나서서 정치를 바꾸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길 바라는 것이 도민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을 떠나서, 충청남도의 다른 국회의원분들과 함께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들의 실생활과 맞닿아 있는 생산적인 국회, 국민들이 걱정하는 먹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기존의 정치 프레임과, 정치 공방을 막으면서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견인하는 것이 초선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중심을 잃지 않는 초선의원으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충남人터뷰

— 20대 충남 초선국회의원 인터뷰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

[약력]

충남 논산 출생.  
장훈고 · 서울대 국문학과  
내일신문 · 시사저널 기자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건양대 교수



△ 당선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 우선 저에게 이 길을 열어주신 유권자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셨고, 또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아이들을 전학시키고 내 내 논산에서 살며 지역주민과 거리를 좁히고자 했던 저의 노력을 알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이번에는 다르겠지”라는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항상 겸손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갖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새벽 3시 무렵에야 결과를 확신할 수 있었던, 1000여 표 차이로 얻어낸 박빙의 승리였습니다. 당시 절감했던 유권자분들의 한 표, 한 표가 가지는 소중함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또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절반의 유권자분들에게 신뢰를 얻어나가기 위해 언제나 경청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향후 4년 동안 의정활동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 이번 총선에서 제가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잘 하겠다’, ‘심각해지는 양극화를 극

복하겠다’ 그리고 ‘지역발전을 이루겠다’ 이 세 가지 공약들을 지키기 위해 타협과 소통의 원칙 위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 희망하는 상임위는 어디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재정위원회를 희망합니다. 정치와 경제는 국가 시스템의 기본적인 두 축으로 국가의 미래발전을 위한 구조개혁의 핵심영역입니다. 특히나 경제는 한 개인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경제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국가적 재정위기와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고,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와 고용불안 등으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제 1당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또한 이러한 경제문제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이 공감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인식에 위에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싶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국가예산전체를 살



피고, 국가의 거시적인 경제정책과 재정정책, 그리고 조세정책을 모두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함으로써 국가 전체 경제에 있어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고, 또 내수와 수출의 양 날개를 모두 갖춘 경제구조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덧붙여 최근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는 세계와 국책은행의 모델 해저드입니다. 먼저 세계는 국가의 근간으로 이에 대한 이해는 곧 국가 예산을 구성함에 있어 전체를 꿰뚫어보는 안목과 시각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조세소위원회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국책은행들이 조선·해운사에 부실대출을 한 탓에 국가경제가 흔들리고 있는데, 국책은행이라는 이유로 출자를 더해주는 식으로 대응하며 그 책임을 묻지 않는 상황은 매우 문제입니다. 민간은행 같았으면 인수합병과 퇴출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인 수출입은행을 포함한 국책은행들에 대해 자세히 뜯어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큰 목표와 세부적인 활동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선거에서 제가 공약으로 걸었던 양극화 해소와 지역발전 모두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할 것입니다.

### △ 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는 무엇이며,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 지역의 발전, 특히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지역마다 맞춤형 공약을 준비해두었습니다. 논산에는 “KTX 훈련소역 유치”를, 계룡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방산업단지 건설”을, 금산에는 “인삼 산업 활성화”를 약속했습니다. 논산에서 계룡에 걸친 국방산업단지 조성금산의 인삼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삼약초건강과크 설립은 대전의 150만 인구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동산업입니다. 그리고 KTX 논산훈련소역 유치 및 논산-금산 4차선 도로 확장은 이러한 기동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교통 인프라입니다. 따라서 이 모두를 꼭 달성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영업부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조선의원에 대한 우리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랜 기자생활과 청와대 근무, 그리고 지방행정 경험으로 쌓아온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 언론, 그리고 기업 등에 걸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 공약 중 국가적 차원에서 중점 추진하고 싶은 공약은 무엇입니까?

☞ 분권을 통한 발전입니다. 성숙한 민주주의와 양극화 해소라는 의정계획 달성의 큰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분권을 통해 발전한다는 것은 분권적 질서에 기반을 둔 협치를 고민하고, 그 결과 우리 사회에 상호존중과 협력의 문화를 뿌리내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의 폐해를 극복하면서도, 동시에 단순히 중앙과 지방이 각자의 몫을 가져가는 자치분권에서 멈추지 않으며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대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분권을 통한 발전이란 더욱 효과적인 국가 운영을 가능하게 해주는 일종의 새로운 국가행정 패러다임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성숙시켜야하고, 또한 3만 불, 5만 불, 나아가 7만 불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이뤄낸 민주주의의 제도적 정착과 한강의 기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분권을 통해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다른 국회의원들과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하고 싶습니다.

### △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 4년 동안 지역에서 열심히 뛰며, 겸손한 소통의 정치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그래서 4년 후에 “김종민이 정치하는 것을 보니까 믿음이 간다, 기대가 된다”는 말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 같은 젊은 조선의원을 선택해 주신 데는 “겸손하고 부지런하게 한 발이라도 더 뛰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공약으로 걸었던 “월 1회 현장대화” 등을 통해 민심에 뿌리내리고자 애쓰겠습니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심을 잘 알아야 하고, 민심을 잘 알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족하거나 가는 방향이 옳지 않다고 생각되면언제든 충고나 쓴 소리를 해주시고, 반대로 잘한다면 잘하는 대로 격려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정청하며, 성장하는 조선의원이 되겠습니다. ◀





## 충남人터뷰 - 20대 충남 초선국회의원 인터뷰

### 박찬우 새누리당, 천안갑

#### [약력]

충남 천안 출생  
성균관대 행정학 박사  
행정고시 24회  
대전 행정부시장  
행정안전부 제1차관



#### △ 당선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 천안과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거의 승리는 서민경제를 살리고 천안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천안시민의 준엄한 명령의 결과이며, 이번 승리는 저 박찬우 개인의 승리가 아닌 우리 천안시민 모두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함께 잘 사는 천안을 만들어 달라는 천안시민의 염원에 기꺼이 부응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33년간 공직생활을 통해 중앙정부 정책을 기획·추진하면서 쌓은 안목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담당했던 지역밀착형 정책 추진의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창조적이고 차별화된 의정활동으로 천안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 △ 향후 4년 동안 의정활동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 4년간 저는 국가 미래전략들을 준비하는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통일, 신성장 동력, 미래 먹거리 산업 등 미래지향적 국가전략을 수립하여 만들어 한반도 평화·통일국가를 후손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사회가 직면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가로 막는 세대 간 갈등, 저출산·고령화 문제, 경제·사회 양극화 사회갈등, 일자리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초선이지만 고위공직자출신으로서 국가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책임지는 바른 정치를 이루어 내고 싶습니다.

아울러 우리 천안지역 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개선하고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온전하게 추

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나서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개발 이익이 지역에도 공유될 수 있도록 수도권 개발이익 공유제를 실시하고 지역발전세를 도입하여 지역에도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희망하는 상임위는 어디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희망하는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입니다.

그 이유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를 줄이고 미래 국가경쟁력 강화와 모두 함께 잘 사는 사회 건설을 위해서 3가지 측면의 불균형문제를(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 문제, 권역내 불균형 문제, 도시 불균형문제) 해소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충청권의 발전을 도모하여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하며 상기 불균형문제를 법·제도·사업적으로 해결하는데 국토교통위원회가 이를 관장하므로 국토교통위원회를 제1순위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의 세입과 세출을 종합적으로 관리·배분하는 기획재정부를 관장하는 기획재정위원회를 통해서 열악한 지역경제 활성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차별 없는 균형발전, 도시 불균형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안전행정위원회는 우리나라 국가안전관



리 체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 채 후진 국적 행태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33년 동안 공직경험의 전문성을 살려 국가안전 관리체계 확립하는 동시에 균형 잡힌 지방자치의 정착 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 △ 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는 무엇이며,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살펴보면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라 수도권 기업유치가 20% 감소할 때 생산유발효과는 약 천억 가까이 줄어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기업유치가 30% 감소하면 1300억 원이 감소하고, 50% 감소시에는 2천200억 가까이 생산유발효과가 줄어들고 여기에 부가가치유발효과까지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됩니다.

충청지역만 보더라도 수도권 이전기업이 급격히 감소 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천안지역의 경우 2011년에는 200개의 기업을 유치했으나 지난 2014년에는 130곳으로 크게 줄었고, 특히 수도권 기업 가운데 천안으로 이전한 기업은 2011년 8곳에서 2012년 7곳, 2013년 1곳, 2014년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처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천안 등 비수도권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00년대 이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오히려 확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의 기조로 인해 우리 천안 지역은 기업유치실적 부진이 인구증가 둔화와 지역 경제성장 저하 등 지역발전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작용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시급히 해결해야한다는 우리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천안지역의 경제에 다시 새로운 활력을 찾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려면, 수도권 밀집현상을 막는 균형발전정책과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상생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도권규제완화나 국가균형발전에 뜻을 함께하는 국회의원과 연구단체 및 포럼을 결성하여 구체적인 해결방안 마련과 관련입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 공약 중 국가적 차원에서 중점 추진하고 싶은 공약은 무엇입니까?

☞ 저의 공약 중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발생하는 수도권과밀화 등 부작용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조속히 해결해야할 선결과제이며, 지역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중점 추진하고 싶은 공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목표와 비전에 맞게끔 법 정비를 다시 하고, 지금의 지역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다시 확대 개편해야 합니다.

다. 국가의 균형발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헌법 123조가 규정한 당위의 문제이자 헌법적 가치입니다. 따라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생발전의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국가전체에 대한 청사진이 들어가야 하고, 각 권역이 각각 균형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법·실행수단이나 정책적 틀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개념에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개념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 내에서 불균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도권규제의 기조는 유지하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청사진을 만들고, 균형발전에 대한 개념을 권역내에 불균형 발전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 충청을 포함한 지방지역 내에서 권역내에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을 위해서 좀 더 광범위하게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국민적 공감대도 모으고, 공론화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내년 말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에 대통령 선거를 기회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정비계획에 대한 정책기조의 국민적 공감대를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 내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도시내에서의 불균형 문제도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로 인한 원도심 공동화문제, 그리고 동서균형발전문제가 있습니다. 도시내 이러한 문제들도 한편으로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으로 인해서 빚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균형발전하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신도시 개발로 이어졌고, 신도시 개발은 원도심 공동화로 이어졌고, 결국 도시내 불균형 발전을 초래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지자체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입법 정책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도시의 불균형발전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균형발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 민심을 천심으로 알고, 국가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바른 정치를 구현하여 다함께 행복한 천안을 만들겠습니다. 이제는 정치가 국민을 위한 새로운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희망의 정치, 누구보다 열심히 뛰는 책임 있는 국회의원이 되어, 그동안 시민들께 약속했던 모든 사항을 흔들림 없이 실현해 지역 발전에 저의 모든 역량을 바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넘쳐나고 교육, 문화, 복지가 풍요로운 살기 좋은 천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오직 국민을 위해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는 소통과 화합, 상생의 정치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지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



**충남人터뷰**

— 20대 충남 초선국회의원 인터뷰

**성일중**

새누리당, 서산·태안

**[약력]**

충남 서산 출생.  
광운대학교 환경공학 박사  
독도사랑운동본부 총재  
고려대학교 그린스쿨대학원 겸임교수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 당선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 부족한 저를 제20대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성원해 주신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초심을 잃지 않고 보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서산·태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과 노력을 다해 뛰어주신 후보님들께 감사와 위로의 인사를 전합니다. 더욱더 섬김의 마음을 담아 주민의 뜻을 헤아리고 받들면서 새로운 희망의 정치를 해나가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향후 4년 동안 의정활동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미래 산업과 거주 및 관광의 메카로 성장할 서산·태안,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의 중심이 될 충남의 청사진을 실현하기 위해 장기적인 안목과 합리적인 아이디어로 다양한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역과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시급한 중점사업은 반

드시 추진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희망하는 상임위는 어디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신기술을 개발하고 신산업을 계획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직면해있습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대기업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강소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지원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매진하겠습니다.

**△ 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는 무엇이며,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조속히 완성하고 미래 고부가가치 사업을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유류피해로 인해 침체된 태안과



충남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내외 각종 회의 및 박람회를 유치하는 등 ‘아름답고 역동적인 충남’을 널리 알리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충청의 오랜 숙원사업인 대산항 국제터미널 건립 사업, 서산시를 첨단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형성하고 태안 기업도시와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서산바이오·웰빙·연구 특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 공약 중 국가적 차원에서 중점 추진하고 싶은 공약은 무엇입니까?

☞ 경제가 어렵습니다. 농촌과 도시 간 격차가 심각하고 서민과 중산층은 붕괴 직전에 이르렀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저출산·고령화의 심화,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남북문제, 그리고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을 책임질 새로운 동력을 찾는 문제가 산적해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미래를 살아갈 다음 세대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가 차근차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이슈를 제기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

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충청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 성일중은 먼저 현장으로 찾아가 소통하고 늘 배운다는 생각으로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안희정 도지사님을 비롯한 도청 및 중앙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연구하며,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는 방향으로 현안들을 해결하겠습니다. 더욱 겸손한 자세로 지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열정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혁신에 앞장서고 지역의 발전을 이루며 충청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충남人터뷰 - 20대 충남 초선국회의원 인터뷰

### 여기구 더불어민주당, 당진

#### [약력]

충남 당진 출생  
오스트리아 빈 국립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장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위원  
더불어민주당 당진지역위원장



#### △ 당선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 존경하옵는 충남 도민과 당진시민 여러분께 참으로 가슴 벅찬 감동으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충남 도민과 당진 시민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충남 도민과 당진시민 여러분의 한없는 믿음과 지지에 보답코자 삼농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민생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충남 도민 그리고 당진시민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가슴깊이 감사드립니다.

#### △ 향후 4년 동안 의정활동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 우선은 당진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립과 분열이 아닌 사회적 대화에 기초한 정치를 구현하고,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정치와 미래를 생각하는 농업, 환경과 산업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원칙과 기본, 상식과 윤리가 바로선 나라, 사회적 신뢰와 국가적 자긍심이 묻어나는 나라를 만드는데 일조 하겠습니다.

#### △ 희망하는 상임위는 어디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희망 상임위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입니다. 이유는 관내 기업과 동반 성장을 추구하고 동 산업분야에서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당진은 철강 및 화력발전소등 중공업을 기반으로 하는 도농 복합 도시로서 지역내총생산(GRDP)은 국내 2위로서 일인당 74,495천원입니다. 그러나 실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총가치분 소득은 일인당 20,000천원 전후로 약 73%정도가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관내 기업이 당진시와 더불어 동반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홀로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조적으로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성장의 혜택이 민생경제에 스며들도록 하고, 동 분야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미래먹거리를 찾고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즉 철강산업의 전방산업(철강수요산업)인 미래형 자동차, 기계 및 가전산업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제약, 미세조류 및 6차 산업 등등 먹거리를 다각화 하고자 합니다.



### △ 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는 무엇이며,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첫째, ‘빼앗긴 당진 땅을 반드시 찾아오는 일’입니다.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정치적, 경제적, 법리적, 기술적 그리고 행정적으로 분쟁중인 땅이 당진시에 귀속함이 바람직함을 입증하고 설득하여 국가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둘째, ‘비어있는 산업단지를 채워 당진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일’입니다. 석문국가산단의 3,634천평 중 28%(58개 업체)만 입주 되어 있고 송산2 일반 산업단지(1,718평)의 2공구는 41%(16개 업체) 입주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공구는 토지 보상 조차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정책의 제도적 정비와 하고 국내외로부터 투자유치를 하겠습니다. 투자 유치규모는 20 ~ 3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셋째, ‘당진시민의 건강권과 재산권, 그리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송전선로 저지하는 일’입니다. 철탑과 송전선로 문제는 “전기부담금법”과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를 도입하여 해결하겠습니다.

### △ 공약 중 국가적 차원에서 중점 추진하고 싶은 공약은 무엇입니까?

첫째, ‘전기부담금법 제정’입니다.

수도권의 경기도 양평, 청평, 가평군 등은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 개발이 제한됩니다. 이 개발제한의 피해에 대한 보상책으로 이 상수원을 이용하는 수도권 주민이 가구당 4천원씩 매달 소위 물 이용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총 5조 3,165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물을 전기로 보면 당진이 상수원 보호구역이 되는데, 송전 선로 피해뿐만 아니라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 때문에 당진시에 피해가 막대합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전기이용부담금’ 징수해야한다고 봅니다.

당진에서 생산되는 전기량은 연간 약 3천3백만MW이

기 때문에 KW당 5원씩만 징수해도 연간 1천6백5십억 원이 되므로 이 돈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송전 선로를 지중화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 극히 일부 피해 보상 이루어지지만 개발연대 법으로서 언 발에 오줌 누기인 실정입니다.

둘째, ‘환경오염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입니다. 현실적으로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 배상액 기준에 의한 배상액이 많지 않아 사업자가 배상액에 구애받지 않고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 가해자에 비해 열등한 지위, 인과관계와 손해배상액의 입증의 곤란, 많은 비용과 시간의 소요 등으로 열악한 처지입니다.

또한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는 지역주민이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오염 불법행위에 대한 혜택(과태료와 벌금)은 국가로 귀속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소송법’을 제정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공동체가 주체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여 피해 보상을 직접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환경오염 발생지 주변의 주민이 환경감시단을 결성하여 환경감시를 하도록 하되 비용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환경오염의 배출자가 부담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셋째, ‘충남 서해안에 대규모 투자’유치입니다.

충남 서해안의 경관은 황해권에서 가장 아름답고 국제적 관광지로 개발 할 수 있는 천혜의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중국의 잠재적 관광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충남 서해안에 대규모 투자를 하도록 유도 하고자 합니다.

### △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도농의 조화로운 경제사회적 발전을 위해 머슴처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